

디지털 시대는 필요에 의한 발명은 맞지 않는다.. (먼저 발명해놓고 필요를 창출해 나가는 지혜와 꺼꾸로 돌아가는 지혜)

안마태

내가 상임 고문으로 있는 한국의 UI Forum (사용자 환경 연구회, <http://www.seri.org/forum/chunjiin>)에 ‘미래 기기 UI 연구회’ 회원 모집 이라는 광고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원하는 것을 보고 조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에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조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나의 경험담을 들려주어 조국의 과학과 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이 글을 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다.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사물의 발명은 필요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필요해서 발명을 하는 것은 발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오늘날 과학 발전의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새로운 발명품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에 필요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다. 그러므로 남보다 먼저 발명을 해놓고 그 다음 이 발명품을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지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가던 길이 막혀있으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미리 연구해 내느냐 하는 문제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연 떠오르지 않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때에 쉬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며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에는 모든 것을 꺼꾸로 생각해 보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

내가 발명한 한글의 동시입력 방법도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오래도록 한글의 기계화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한 결과물이었다. 오랜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 이에 필요가 창출 된 것이지 꼭 이것이 필요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내가 한글의 기계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약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6 년에 대한민국의 여느 젊은이들처럼 나도 군대를 가게 되었다. 포병 기초 훈련을 받고 부대 배속을 받은 곳이 오산 비행장에 주둔한 미군 제 10 대공 포단이었다. 이 부대는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고사포를 한국군에 인계 중 이었고 새로운 대공 미사일 부대로 거듭나는 중 이었는데, 나의 주 임무는 한국군의 고사포 장비보고를 전화로 받아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여 상급부대인 8 군 사령부와 미 제 5 공군 사령부로 한반도 안의 대공포 장비 현황을 테렉스로 보고서를 보내는 것이었다.

이 고사포 부대의 근무는 나로 하여금 젊은 나이에 이미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날라가는 적의 비행기를 지상에서 포를 쏘아서 떨어트릴려면 적기의 고도, 비행 속도, 풍속, 기압, 탄환의 속도 등 여러 가지의 정보를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처리하여 포탄에 입력해 주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가 필요하다. 더더구나 미사일은 컴퓨터가 없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한발의 폭탄에 지나지 않는다.

저녁에는 비행장 안에 있는 야간학교 메린랜드 대학을 다녀야했기에 숙제를 하느라 매일 타자기를 많이 두들겨야했고 낮에는 테렉스 자판을 두들겨야 했기에 젊어서부터 나는 상당히

영어 자판 사용에 능숙해 있었다. 그런데 나는 한번도 한글 타자기나 한글 테렉스를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언제나 기회가 오면 한글로 영어처럼 신나게 두들겨 보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한글의 기계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우리 나라의 유명한 한글 학자이신 최현배 선생님 때문이다. 첫 해외 유학을 떠나기 전인 63년도에 최현배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다. 당시 나는 연세대학의 학보사(연세 춘추사) 기자 생활을 했었고, 이분은 신문에 한글 가로풀어쓰기를 연재하였기에 그 동안 자주 만나서 한글의 기계화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었다. 뉴질랜드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보고 겸 인사를 드렸더니 이분 말씀이 “자네는 국문과 학생이 아닌데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글 기계화에도 관심이 많은 신학도인데 남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해외 유학을 가게 된 것은 한글의 기계화 연구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일세.”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유학 중에 방학 때마다 부지런히 인쇄소에 가서 일하게 되었고, 69년에 미국 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도 부지런히 인쇄소에 가서 서양의 발전된 인쇄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이분의 예언자적인 충고는 그래서 내가 평생을 한글의 기계화 연구에 매달리게 하였다. 그러다가 보니 나도 모르게 한글 기계화의 전문가가 되어서 한글의 동시 입력기 발명까지 이르게 되었다.

남부 조국에서는 2003 년도에 카이스트가 나의 동시입력기를 발표하게 되어 카이스트와 내가 공동으로 이것을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카이스트는 이미 개발된 나의 동시입력법을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의 윈도우 용으로 사용할 키보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었다. 이 동시 입력법의 기초적인 연구는 80년대 초에 이미 미국에서 완성되었고, 이 동시 입력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1999년에 중국의 연변에서 처음 개발 하였다. 그런데 남부조국에서 나의 발명품이 이렇게 늦게 소개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내가 사는 미국에서는 이미 60년대에 아날로그 방식의 인쇄 기술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어 있었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편집과 인쇄를 하였다. 하지만 북부 조국과 남부 조국에서는 그때까지 납활자를 주로 사용하였기에 내가 컴퓨터에서 한글로 동시 입력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면 소 귀에 경 읽는 격이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조국에서는 컴퓨터가 도입되고 한글 입력기가 개발되어 인쇄술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으나 한글 입력 방법은 영어 입력 방법처럼 자모 한자씩 입력하는 방법에서 아직도 한발자욱도 발전하지 못하였다. 아직도 한글 입력법에서 자음과 모음을 차례대로 입력하는 2 별식 표준자판과, 자음, 모음, 그리고 받침을 분리해서 입력하는 공병우식 3 별 자판 간의 논쟁만 계속해오고 있다. 이들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나의 3 별식 동시입력법을 소개하지 않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어식 순차 입력 방식은 한글의 자모를 자모의 순서대로 입력하여 컴퓨터 내부에서 자모를 조합하여 모아진 글자를 찾아서 출력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영어식 입력방법을 꺼꾸로 순서를 바꾸어 완성된 글자를 한꺼번에 입력하여 자모 한자씩 그러서 내보내도록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나의 이러한 새로운 입력 방법을 중국의 젊은 동포학자와 함께 1999년 연변에서 개발하여 2000년도 중국 심양에서 열렸던 동북아시아 언어 컴퓨터 처리 학술 대회에서 발표하게 되었고,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학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들 나라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카이스트가 먼저 초청해 주었고 그 후 여러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카이스트는 고맙게도 나의 발명품을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에 사용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주었으며 새로운 나의 웹을 만들어주어 국민들이 무료로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도록 도와 주었다. 또한 이 웹에는 자유 게시판을 열어두어 많은 사람들의 입력자판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이 게시판은 쌍스러운 내용이나 광고성 글로 골치를 앓았고, 2 별식 자판(정부 표준 자판) 사용자들과 공병우식 3 별자판 사용자들로부터의 비난성 글이 많았다.

또 한편으로는 3 별식 자판 사용자들과 북부 조국의 사회과학원 학자들로부터의 좋은 제안들이 있어서 이들의 제안을 많이 받아드리고 테스트를 하느라 2003 년도에야 카이스트가 언론기관에 이 새로운 자판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회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들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중국에 가서 나의 동시입력용 자판을 개발하게 되었고, 자비로 2 천 개를 만들어 남부 조국과 미국에서 무료보급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자판 보급에 방해를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9 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테렉스용으로 만든 자판을 82 년 전두환 정권이 컴퓨터의 표준으로 삼은 현재의 2 별식 자판(자음과 모음만 있고 받침이 따로 없는 현재의 자판)으로 자모를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모아진 글자를 찾아와 내보내주기에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69 년 당시 과학기술처의 과학자들이 만든 것이기에 아주 과학적으로 잘 되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읽어보라는 영어로 된 Reference 만 잔뜩 열거해서 어떤 회사의 웹에 올려놓았다. 마치 미국에서 은퇴한 할 일 없는 늙은이가 컴퓨터의 자판 입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분다는 식이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료 배포 중이던 남부 조국에서의 무료 자판 보급을 즉시 중단하고 남아있던 중국산 자판 800 개를 다시 중국으로 수입해와서 현재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길림성 연길시의 조선족 소학교 1 학년들에게 보급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Korean Community Services, Inc.의 사무실에 연구실을 새로 차리고 (<http://www.ahnmatae.org>) 중국에는 자판 보급과 중국어 개발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게 되어 현재 중국어 입력기 (안마태 정음 입력법) 베타판이 완성되어 실험과 보급이 시작되었다.

현재 중국조선족 과학자들이 주선해주어 한글용 안마태 바른 소리 글판의 보급도 서두르고 있으며 이의 표준화도 서둘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북부 조국에도 영향이 크기에 중국뿐 아니라 이북에도 표준을 삼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있어 남부 조국에서 냉대받은 나의 바른소리 글판이 공산국가들에서 먼저 표준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IT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컴퓨터 한글 입력에서는 훨씬 뒤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날것 같다.

나의 중국어 입력기 정음 입력법은 현재 사용되는 5 필법 입력법 보다는 최소한 두 배가 빠르며, 많이 사용되는 병음법 입력기 보다는 무려 4 배가 빠르기에 머지 않아 나의 정음 자판은 중국에서의 중국어 컴퓨터 입력 표준 자판이 될 날도 멀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중국 말은 잘하지만 글을 쓸 줄 모르는 한족 젊은 여성을 고용하여 입력 속도를 측정해보니 하루에 만나절만 일하고 한달 남짓한데 이미 1 분당 70 자의 입력이 가능하기에 과거에 실시한 자율 신경 훈련의 테스트를 감안하면 최소한 1 분당 400 자의 입력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5 필법의 최고 입력 속도가 1 분당 180 자이며 병음법이 100 타를 넘지 못한다.

한글의 기계화는 우리나라에서 서양 사람들의 흉내만 내어왔는데 내가 발명한 한글의 동시 입력 방법은 서양식 입력 방법을 꺼꾸로 입력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먼저 남이 가고 있는 길을 꺼꾸로 걸어가는 권고를 하고 싶다. 내가 만약 영어식의 자모 한자씩 입력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며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자판을 아무리 만들어 보았자 아직도 한국에서 일고 있는 자판 논쟁에만 휘말려서 시간 낭비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물이 앞에와 놓이면 옆으로 돌아가는 지혜도 가지라고 권고하고 싶다.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의 괘시와 천대를 무릅쓰고 계속 자판 무료 공급을 실시하느라 창고비와 비싼 인건비를 물고 있었다면 경비만 더 나가고, 자율신경이 2 별식 정부 표준 자판으로 굳어진 사용자들과 쓸데없는 시간과 정력 낭비만 하였을 것이다. 다행히 이들을 조용히 피하고 미국에 서버를 구축하여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한글, 영문, 중국문으로된 웹으로 한글의 과학성을 세계에 알리지 못하고 비좁은 남부 조국에서 타자기 시대(혹은 아날로그 시대)의 유물인 2 별식,

3 별식 논쟁에만 휘말려 있었을 것이다. 이들을 피하여 중국에 와서 중국어 입력기를 개발하지 않았으면 몇 억이나 되는 중국어 입력법은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 UI 기기를 연구하고자하는 분들에게 다음 두 가지의 팁을 드리고져 한다.

먼저 남들의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고 꺼꾸로 가라는 권고에 대한 팁 한가지부터 말하겠다. 현재에 나와있는 모든 손전화기는 모두 Sliding Up 혹은 Flipping Up System 으로 되어있다. 이것을 꺼꾸로 바꾸어서 Sliding Down 혹은 Flipping Down System 으로 꺼꾸로 디자인을 바꾸어보라는 것이다. 꺼꾸로 디자인을 바꾸면 처음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점차 이점이 많아진다.

첫째로, 밝은 곳에서는 전화기의 화면이 손목 사이에 들어오므로 화면을 보기가 쉬워진다.

둘째로, 현재 까지는 차에 타면 뺏배리 충전을 위해 라이터기와 연결해야하고, 운전시의 편리한 스피거와 히어링이 달린 선을 연결한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직접 충전하고 직접 말하고 듣기 위해 자동차의 앞쪽 뺏 배리 옆에 꽂는 식으로 변할것이다. 이럴때에 자동차의 충돌 시 전화기가 튕겨나가 버리는 현상이 없어진다. 그 이유는 뺏 배리가 있는 쪽으로는 앞쪽으로 경사가 저 있기 때문이다. 이 전화기 꽂는 자리에 뺏배리와 연결 해두고, 이미 있는 라디오와 다른 음향 기기와 연결해두면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용이해진다. 이미 많은 차에 볼륨 컨트롤과 이런 음향기기의 스위치가 핸들에 놓여있다. 이미 미국의 많은 주에서 운전할 때에 손전화기를 들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에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우리 앞에 다가 올 것이다..

셋째로, 앞으로의 손전화기는 용도가 다양해진다. 현재는 손전화기 따로, 자동차 열쇠와 차문 여는 크릭커 따로, 대문여는 크릭커 따로, 차고문 여는 크릭커 따로, TV 용 컨트롤 따로, 음향기기 컨트롤이 따로 되어있다. 이런 모든 것을 전화기 하나로 융합될 날이 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모두 라디오 주파수로 움직이게 하기에 전화기 하나로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은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므로 손전화기를 집에서 나갈 때는 쉽게 자동차에 꽂았다 뺐다가 하는 데에 편리해진다.

다음으로 돌아서 가라는 권고를 하고 싶다. 내가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중국에서 나는 컴퓨터용 입력 자판으로 쓸 수 있는 한글로 입력해서 중국어 한자씩 바로 입력이 가능한 안마태 정음 입력법을 개발완료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났기에 중국어의 손전화기 자판을 연구하고 현재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단계에 와있다.

중국에서는 2005 년도에 1 억 1 천만대의 손전화기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중에 7 천만대가 중국 국내에서 팔렸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자 입력을 위해 외국에서 개발된 한자 입력법(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T9 이다.)을 라이선스를 주고 사와서 파는데 작년엔 라이선스 비용이 4 천 만불이 넘는다. 중국의 과학자들은 모두 어디로 가버렸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이 중국어용 손전화기 자판으로 한글을 만들어보니 엄청난 속도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우리 UI Forum 고문이신 최인철 님의 천지인 자판과 비교해보니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예를 들어 “사랑해”라는 우리글 석자를 치는데 천지인으로는 13 타가 들어간 웹에서의 통계를 보았고, 단어 다음에 공간을 두어야하기 때문에 모두 14 타가 필요한데 나의 정음 손자판으로 같은 단어를 만들고 공간을 치는데 필요한 타수가 5 번 밖에 필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은 최인철 님의 발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나의 한손자판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분의 새로운 발명은 우리 민족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가르쳐 주었기에 역사에 남을 일을 했다. 중국 사람들처럼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오지 않도록 외화 절약을 하는데 일등 공신이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의 바른소리 글판이 남부 조국에서 외면을 당했기에 중국에 와서 중국어 컴퓨터의 입력 자판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제 시간이 있어서 손전화기까지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짜다가 보니 엉뚱하게도 한글의 손전화기 자판에도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기 위함에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의 사고 구조를 꺼꾸로 생각하고 돌아갈 줄 아는 지혜를 가지자고 권고하고 싶다.

2006 년 6 월 14 일

중국 동향에서,